

## 아브라함 카이퍼의 국가관에 관한 고찰: 반혁명적 국가학(Antirevolutionaire Staatskunde)을 중심으로\*

A Research on Abraham Kuyper's View of State focusing on Antirevolutionaire  
Staatskunde(*Antirevolutionary Political Science*)

최용준(Yong Joon (John) Choi)\*\*

### ABSTRACT

This article investigates Abraham Kuyper(1837-1920)'s view of state, focusing on his last two volumes work, Antirevolutionaire Staatskunde(Antirevolutionary Political Science). First, Kuyper points out state was not the original plan of God's creation. Rather, it appeared as a result of the fall into sin. In other words, state was first introduced by God's common grace to alleviate the consequence of sin and the curse associated with it. So it is not an organic form of human life, but a surgical procedure authorized by the Divine Physician, for the wound caused by sin. It is like an medical bandage to the injured and is thus inherently abnormal. Therefore, Kuyper emphasizes that when the Kingdom of God will be consummated, state will disappear. After that, the three elements of state, namely, people, land, and sovereignty are dealt with in turn, together with his famous idea of sphere sovereignty. Then the subjects such as central government, the goals of stat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are discussed, compared with other scholars and evaluated. As a conclusion, the implications of Kuyper's view of state in Korean society are drawn.

**Key Words:** Abraham Kuyper, state, common grace, medical bandage, sphere sovereignty

\* 2023년 2월 13일 접수, 3월 5일 최종수정, 3월 10일 게재확정  
이 연구는 한동대학교 교내연구 지원 사업 제202201210001호에 의한 것임

\*\* 한동대학교(Handong Global University) ICT 창업학부 교수, 경북 포항시 북구 한동로 558, crosspower@handong.edu

## I. 서론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는 네덜란드가 낳은 위대한 개혁주의 신학자, 교육자, 언론인인 동시에 정치가였다. 지금까지 그의 사상에 관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www.allofliferedeemed.co.uk/kuyper.htm, Snel, 2020, 정성구, 2010). 하지만 그의 생애 마지막에 헌신한 정치 및 국가학 분야에 관해서는 비교적 연구물이 적은 편이다. 해외에서는 영국의 정치 신학자 조나단 채플린(Jonathan Chaplain)이 카이퍼의 후계자인 헤르만 도여베르트(Herman Dooyeweerd)의 국가 및 사회관에 관한 저서를 출판했으며(Chaplain, 2011), 국내에서는 김종원이 도여베르트의 국가관에 대해 다룬 논문은 있으나(김종원, 2016) 정작 카이퍼의 국가관을 깊이 다룬 논문이나 저서는 거의 없다.

필자는 최근에 카이퍼가 마지막으로 남긴 두 권의 방대한 저서 Antirevolutionaire Staatkunde(반혁명적 국가학) 중 1권 전체와 2권의 절반(Kuyper, 1916)을 한국어로 번역하게 되면서 그의 국가관을 좀 더 깊이 살펴볼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책에 나타난 그의 국가관을 다른 저서들과 관련 문헌들을 다른 학자들의 견해와 비교하면서 고찰하고자 한다. 지면의 한계상 그의 책에 나타난 방대한 내용을 모두 다룰 수는 없고 먼저 국가의 명칭과 본질을 살펴본 후 국가의 세 요소인 국민, 국토 및 주권을 차례로 다루어 보겠다. 그 후에 중앙 정부, 국가의 목표 그리고 국제 관계에 대한 그의 사상을 논의, 평가하고 그의 국가관이 현대 한국 상황에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 결론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 II. 아브라함 카이퍼의 국가관: Antirevolutionaire Staatkunde(반혁명적 국가학)을 중심으로

### 1. 국가라는 명칭

카이퍼는 『반혁명적 국가학』 1권 2장에서 ‘국가’라는 명칭은 18세기가 되어서 비로소 보편화되었다고 지적한다. 가령 성경에도 ‘국가’라는 명칭이 전혀 없으며 단지 민족들(de volken)을 말하며, 고임(גוים: 창 14:1 등) 또는 에트네(ἔθνη: 마 6:32 등)와는 달리 이스라엘에서는 하암(חַמּ: 호 2:1 등) 또는 라오스(Λάος: 마 4:16 등)라고 하지만 정치적 맥락을 가진 일반적인 이름은 나타나지 않는다. 나아가 성경에 제국(Rijk, מְלָכָה)이라는 표현은 나타나며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지상의 군주가 통치

하는 국가라는 의미에서 세계적 제국도 있지만(단 7:14), ‘국가’라는 단어 또는 이에 상응하는 표현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는 말한다. 또한, 고대 그리스 시대에도 국가라는 표현은 없었으며 국가들(staten)이 아니라 도시들(steden)이 존재했고 따라서 도시(stad)를 뜻하는 폴리스(πόλις)라는 단어에서 정치(politiek)라는 개념이 나왔다고 그는 지적한다. 로마인들은 왕국(regnum)과 제왕권(imperium), 원로원(Senatus populusque) 또는 공화국(res publica)이라는 일반적인 용어 외에도 도시(civitas), 시(urbs) 및 지방자치단체(municipium)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고 카이퍼는 분석한다(Kuyper, 1916: 87-88).

중세에는 신성로마제국(Heilige Römische Reich)<sup>1</sup>이 유럽 전체의 통일을 다시 시도했을 때, 다양한 기독교 국가들이 이 제국에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카이퍼는 말한다. 하지만 황제와 교황 간 갈등의 결과로 이탈리아에서는 도시 자유 국가가 출현하였고 라틴어로 이것은 civitas(도시)라고도 불리며 고대에는 res publica(공화국)로 불렸고, 이탈리아 공화국은 일반적으로 엘 스타토(el stato)라고 불렸다.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사상가요 정치철학자였던 니콜로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 1469-1527)는 이 이탈리아어를 일반적 개념으로 사용하면서 그의 군주론(*Il Principe*) 첫 페이지에서 “모든 국가는… 공화국 또는 군주제이다(Tutti li stati, … sono o repubbliche o principati)”라고 말했다(Machiavelli, 1532: 3). 그리고 이것은 프랑스 종교 개혁기의 법학자이자 사상가인 장 보댕(Jean Bodin, 1530-1596)이 1577년에 출판한 그의 공화국에 관한 여섯 권의 책(*Les Six Livres de la République*)에서 국가(état)에 대해 말하면서 프랑스 문학에도 소개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보댕이 그의 작품 제목으로 붙인 공화국(de republiek)은 군주제에 대한 반대자 아니라 현재 우리가 국가라고 부르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게르만 국가에서는 국민을 위한 국가(Staat)라는 단어가 정치적 맥락에서 널리 사용되기까지는 훨씬 더 오래 걸렸는데 공식적으로는 1794년에 프로이센(Preußen)<sup>2</sup>의 일반 토지법(algemeene Landrecht)에서 처음 발견되었다고 카이퍼는 지적한다(Kuyper, 1916: 89).

카이퍼에 따르면 근대에 사용되는 표현들은 독립된 권력을 차지한 특정 집단을 언급하고 그 집단의 권력을 대표하는 이름으로 국가(staat)라 불렸다. 따라서 이 지위는 스스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대표권 또는 양도에 의한 것이었으며 국가라는 단어가 파생된 라틴어(Status)는 어떤 식으로든 분야나 지위가 아니라 원래 상태(toestand)에 불과하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그는 강

1) 신성 로마 제국(Sacrum Romanum Imperium)은 중세 초기에 형성되어 1806년 해체될 때까지 중앙 유럽에서 발달한 다민족(이 지만 대부분이 독일계) 영토복합체다. 그 영토 가운데 중 가장 큰 것이 독일 왕국이었고, 그 외 보헤미아, 부르군트 및 이탈리아 왕국 등이 있었다.

2) 프로이센(Preußen)은 1947년까지 독일 북부에 있었던 주로서 1918년까지는 베를린을 수도로 한 호엔촐레른(Hohenzollern)가의 왕국으로 발트족의 일파인 프루사(Prüsa)에서 그 이름을 따다.

조한다. 즉 전체 인구에서 더 높거나 덜 독립적인 위치를 차지한 집단은 그 후 자신의 지위를 형성했고, 국가는 이러한 위치를 차지한 사람 위에 있으며 그 집단에 관계된 권력을 대표한다는 것이다(Kuyper, 1916: 91). 현대에 국가라는 단어는 보통 일정한 영토가 있고 조직된 정치 형태인 정부를 가지고 있으며 대내외적 자주권을 행사하는 정치적 실체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카이퍼의 설명과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 2. 국가의 본질: 일반 은총의 산물

카이퍼는 이처럼 국가의 명칭과 기본 개념이 불안정한 것은 죄가 인간의 삶과 세계에 일으킨 혼란과 관련이 있다고 지적한다. 즉 국가는 원래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타락의 결과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란 타락 후 인간 사회가 받아들여야 했던 깨어지고 죄 많은 상태의 결과이며 이것은 타락한 세상이 계속되는 한 지속할 것이다(Kuyper, 1899: 72, 박태현, 2021). 즉, 국가는 타락의 쓰라린 결과와 그와 관련한 죄와 저주의 결과를 완화하기 위하여(창 9:6) “일반 은총(gemeene gratie)”의 산물로 주어졌으므로 국가는 인류의 삶에 원천적으로 유기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죄가 닥친 결과 나타난 파열 이후 신성한 의사인 창조주께서 허용한 외과적 봉대(chirurgisch verband)이며 따라서 어떤 봉대와 마찬가지로 본질에서는 비정상적인 것이다(Kuyper, 1902 Eerste Deel: 78-80, Derde Deel: 27). 우리가 봉대를 사용할 경우는 골절, 상처 또는 질병으로 신체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가능하지 않을 때이며 따라서 국가는 이 수술용 봉대처럼 신체의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라 추가, 보존 및 회복하는 치료적 도구라고 카이퍼는 강조한다(Kuyper, 1916: 98). 이는 카이퍼의 성경적 국가관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첫 번째 요점이다.

나아가 그는 타락 이후에 파괴된 인간의 삶과 하나님 나라(het Koninkrijk Gods)의 통일성을 대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는 더이상 국가들의 분열이 없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고 깨어지지 않는 유기적 통합만 있다고 강조한다. 완성, 즉 완전한 복원이 실현되면 이 봉대는 그 목적을 달성한 후 성가신 것이 되므로 제거될 것이다. 죄와 비참함에서 구속된 인류 사회에서는 더이상 국가, 정부 그리고 판사가 필요 없는데 이는 마치 두 발의 조화로운 사용을 되찾은 지체 장애인이 자연스럽게 그가 의지하던 목발을 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국가는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가를 무시해도 되는가? 카이퍼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국가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안경, 청각 장애인을 위한 보청기, 마비된 사람들을 위한 휠체어와 같기 때문이다. 지체 장애인에게 목발만큼 귀한 가치를 지닌 것은 없다. 이것들은 인간 사회의 결함이 지속하는

한 도움이 되며 최고의 가치를 갖지만,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면 폐기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 또한 타락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물 중 하나이지만, 완성 이후에 오는 천국에서는 모든 국가가 자동으로 그리고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카이퍼는 주장한다(Kuyper, 1916: 98-99). 이러한 국가관은 다른 일반 학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입장인데 일반 학자들은 국가의 탄생을 고대 농업 사회가 정착하면서 생겨났다거나(Wang, 2021: 175-198) 전쟁으로부터 안전 보장을 위해, 무역을 위한 경제적 이해관계로 또는 각종 집단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 등으로 설명하는 반면(Spruyt, 2002: 127-149), 카이퍼는 창조, 타락, 구속 및 완성이라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 3. 국가의 첫 번째 요소: 국민

국가는 보통 하나 이상의 민족으로 구성되며 어느 정도 정의된 영토와 정부를 소유한 사람들의 공동체이고 일반적으로 언어, 역사, 민족, 문화 및/또는 사회와 같은 공유된 특징의 조합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카이퍼는 국가의 첫 번째 요소인 국민에 대해 『반혁명적 국가학』 1권 5장에서 다루면서 이 ‘국민(het volk)’은 원래 대량, 많음, 다수라는 단어에서 나왔다고 설명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게르만어에서 국민(volk, folc, fōlk 및 volck)으로 나타나며 라틴어에서 포풀루스(populus)라는 단어는 같은 부족의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러한 전환은 주로 리투아니아어에서 발생하여 국민(volk)은 pulkas로 적고 고대 슬라브어에서는 더 짧은 pl’k, 보헤미아 또는 체코어는 pluk이라고 적는다. 여기서 이 단어들과 라틴어를 비교해보면 pla, ple에서 plenus, plebes가 유래되었고 populus는 민족(volk)과 같은 어원으로 “다수”라는 의미이다(Kuyper, 1916: 147).

나아가 카이퍼는 국민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 다른 용도로 구별하는데 첫째로는 우리가 중국인, 흑인, 몽골인 등을 말하듯 기원, 특성 및 언어에 의해 구별된 집단을 형성하는 인류의 한 부분이며 둘째로는 비슷한 특성을 가진 집단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가령 독일에 사는 독일인들과 멀리 떨어져 있는 독일인 집단의 경우가 해당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원과 전혀 상관없이 같은 국가에 사는 거주자들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Kuyper, 1916: 154).

한 국민의 통일성은 언어의 통일성으로 가장 분명하게 표현되는데 특히 그 언어가 사람들을 지탱 해주면 생활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카이퍼는 말한다. 이 언어에는 네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먼저 독일, 스칸디나비아, 중국, 일본 등의 경우처럼 자국어(를 거의 혼합하지 않은) 국민이 있고 둘째로는 자신의 언어를 관리할 수 있었으나 네덜란드 경우처럼 혼합을 허용했던 국민이 있으며 셋째로는 영어처럼 두 언어가 혼합되어 새로운 형태의 언어를 낳은 국민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원래

의 언어를 버리고 완전히 다른 언어로 교체한 국민이 있는데 특히 불가리아 국민이 그런 경우로 원래 그들의 언어는 핀란드어였지만 슬라브족이 되어 현재 불가리아어인 슬라브어를 발전시켰다는 것이다(Kuyper, 1916: 162-163).

카이퍼는 일반 은총의 관점에서 국민을 가족, 성별 및 개인으로 분류하면서 이들은 각각 농업, 무역, 산업 등의 영역에 종사하며 서로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것을 사회(de maatschappij)라고 부르며 여기서 각 영역으로 나뉜다(Kuyper, 1904: 80-81). 이러한 국민은 정부에 대하여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다양한 권리와 자유(de rechten en de vrijheden)를 가진다(Kuyper, 1904: 81). 따라서 카이퍼는 국가 주권(Staatssoevereiniteit)을 강조한 국가 절대주의를 비판하였고 네덜란드가 스페인의 절대왕정에 대항하여 독립전쟁을 80년간 치른 후(1567-1648) 마침내 독립을 쟁취한 것을 정당화하면서 국민 주권(Volkssouvereiniteit)을 주장했다(Kuyper, 1904: 82). 결국, 정부가 가진 권위(het Gezag)도 국민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이다(Kuyper, 1904: 84). 이것은 후술하겠지만 카이퍼가 칼뱅과 같이 군주제나 귀족정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민주 공화정을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그 근거로 카이퍼는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다윗과 언약을 맺은 후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통치자)으로 삼는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Kuyper, 1904: 84-87). 이것은 그가 강조한 영역 주권(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사상과도 연결된다. 즉 오직 하나님만 절대 주권자이시며 국가, 교회, 학교, 가정, 기업 등은 각각 그 영역에 위임받은 주권만 가지므로 다른 영역 위에서 절대적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Kuyper, 1880).

#### 4. 국가의 두 번째 요소: 국토

국가의 두 번째 요소인 국토(國土)란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국민이라는 인적 자산의 존재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개념이며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으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배타적 영역이며 국민의 생활공간이자 삶의 터전이다. 이 국토(het land)에 대해 카이퍼는 『반혁명적 국가학』 1권 6장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국토는 국경이 있고 그 건너편에는 다른 나라의 주권이 지배하지만 그 경계 안에서는 국민이 주인이자 주권자이다. 네덜란드의 경우 과거 수 세기 동안 네덜란드인 조상의 땅이었지만 이제는 네덜란드인의 땅이고 곧 그들 자녀의 땅이 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은 국토에 관심이 있고 그 안에 살고 있다. 국토는 태양 아래에서 살도록 그 국민에게 할당된 장소이며 시대마다 그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변하고 사라지지만 국토, 조국 그리고 조국의 토양은 그대로 머물면서 대대로 살아가는 국민에게 견실한 모습을 보여준다. 모든 세대를 이어온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유산의 이미지인 국토는 국민이 대대로 거주하면서 삶을 가능하게

했으며 그들이 영원히 안식할 때에는 새로운 세대가 나타나 거주하게 될 것이므로 국토는 세대를 이어가는 국민의 단결을 보여준다고 카이퍼는 설명한다(Kuyper, 1916: 170).

또한, 카이퍼는 각 민족이 거주하는 영토의 특성과 상태가 그 민족성의 형성과 국가 생활의 역사적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따라서 영토의 일반적 중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국토가 위치한 영역(de zone)을 고려해야 하는데 부의 형성에 관한 토양의 상태, 상황을 통제하는 도로와 수로 그리고 국경의 반대편 영토와 국민의 상태와 같은 주변 환경이 중요하다. 따라서 국토 자체, 국토 아래, 위에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의 기울여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Kuyper, 1916: 171-172).

국민 생활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먼저 국토의 토양이 지하자원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의 여부라고 카이퍼는 지적한다. 석탄, 금속, 석유 등의 지하자원은 수 세기 동안 국가를 풍요롭게 할 수 있으며 풍부한 광산도 깊이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수 있다(Kuyper, 1916: 175-176). 둘째로 토양의 비옥도 또한 매우 중요하다(Kuyper, 1916: 177). 그리고 셋째로는 토지가 평지인지 아니면 산지인지도 국민의 삶에 차이가 발생한다고 그는 주장한다(Kuyper, 1916: 178).

나아가 카이퍼는 국토의 위치와 상태가 세계를 지배하는 데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한다. 가령 유럽은 아시아, 아프리카, 미국과 비교하면 작지만 실제로 세계의 운명을 지배하는 영광을 누렸던 반면 동아시아와 남아시아에서 일어났던 문명은 고립된 채로 남아 있었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평원에서 일어난 문명도 곧 사라졌다. 이집트는 한동안 강력했으나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인간의 삶에 대한 모든 계사가 이슬람 아래 들어간 이후에 쇠퇴했으며 오직 그리스와 로마인들, 켈트족과 독일인들에 의한 유럽만이 마침내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다는 것이다. 물론 유럽은 그 패권을 다시 잃을 수 있으며, 중국, 일본, 인도에서 아시아의 부흥이 이미 우려의 원인이 되기도 했으나 지난 20세기 이상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도전을 받지 않고 있다고 그는 보았다. 따라서 유럽에 거주할 땅을 찾은 민족들은 온대 지역의 땅이며, 평범하지만 비옥한 땅이고, 광산이 너무 많지는 않은 땅이지만, 평범한 평야와 산악이 가장 다양한 땅으로 이들은 여전히 세계의 주인인데, 이것은 어느 정도 이들이 거주한 지형 때문이라고 카이퍼는 주장한다(Kuyper, 1916: 180-181).

그 외에도 국민이 거주하는 영토의 영향은 육지와 수로에 의해 다른 곳에 접근하고 국토를 관통하는 교통망을 통해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게 된다고 카이퍼는 강조한다(Kuyper, 1916: 181-182). 또한, 육지에서의 통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호수, 개울과 운하, 특히 수로라고 그는 말한다(Kuyper, 1916: 182-183). 그러나 강과 하천이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축복보다 더 강력한 것은 해변에 거하는 주민들이 항해를 통해 얻게 되는 고도의 생활 수준임을 그는 주목한다(Kuyper, 1916:

185-188). 이는 그가 네덜란드 출신이기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며 나아가 네덜란드가 17세기에 국제 해상 교역을 통해 세계 무역을 제패한 소위 ‘황금시대(Gouden Eeuw)’를 구가했던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준다(최용준, 2014: 153-181). 마지막으로 카이퍼는 국토의 중요한 요소는 이웃 국가와 관련된 지정학적 위치에서 발생하며(Kuyper, 1916: 188-191) 동시에 이와 관련된 언어적 요소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Kuyper, 1916: 191-193). 물론 이것이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싫든 주변국에서 발생하는 일의 영향력은 점점 더 많이 고려해야 할 요소임은 틀림없다. 특히 영국, 프랑스 및 독일 등의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네덜란드와 중국, 일본 및 러시아 가운데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이 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 5. 국가의 세 번째 요소: 주권

주권(主權, sovereignty)이란 국민, 국토와 함께 국가를 구성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반혁명적 국가학』 1권 8장에서 카이퍼는 이 국가의 주권에 대해 다루는데 이 주권의 개념은 행정적 의미에서 정부의 권위에 점점 더 한정되어 있으며 이 단어의 어원은 프랑스어 주권(Souverainité)에서 나왔는데 원래는 라틴어 Superanitas에서 왔고 이것은 다시 추악한 중세 단어인 과도한 권력(Supra-potestas)에서 나왔다고 그는 설명한다. 따라서 이 땅에서 주권을 가진 사람은 그보다 우월한 권력이나 권위가 없는데 결국, 이것은 전능자에게만 생각할 수 있는 것으로 원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 인간에게 이전되는 것이라고 그는 주장한다(Kuyper, 1916: 261). 이는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 1588-1679),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 장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 등이 주장한 바와 같이, 주권을 국민의 양도로 구성된 것으로 보는 사회계약설과는 전혀 다른 입장이다.

카이퍼는 이 하나님의 주권이 인간에게 이전되는 것은 단지 국토와 국민의 정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위임되어 행사된다고 설명한다(Kuyper, 1916: 263).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은 모든 무생물에 대해서도 미치며, 인간이 처분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일부도 매우 크기 때문에 국가의 전능함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항상 진지하고도 강력하게 항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저항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왜냐하면, 카이퍼에게 있어 국가의 전능을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한 가장 견딜 수 없는 폭정이기 때문이다. 특히 당시 네덜란드에서는 기독 사립학교와 공립학교 교육 간의 경쟁이 급격히 심화 되었는데 기독학교가 학문의 자유를 주권적으로 행사하는 권리를 정부가 다양하게 제한하는 것을 카이퍼는 예리하게 비판하면서 암스테르담의 자유대학교(Vrije Universiteit) 개교 당시 초대 총장으로 시내에 있는 신교회(Nieuwe Kerk)에서 개교 연설을 위해 선택한 주



제가 바로 ‘영역주권(領域主權,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이었다(Kuyper, 1880: 265-268, 박태현, 2020). 즉,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지만 국가, 교회, 학교, 기업 등 사회의 각 영역은 나름대로 창조주로부터 위임받은 독특한 주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한 영역이 절대화되어 다른 영역을 간섭하거나 통제하면 분명히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자유대학교는 1880년 10월 20일에 설립되었으며 그 명칭은 국가와 교회로부터 대학이 독립됨을 뜻한다. 나아가 카이퍼는 다른 영역에 대해서도 국가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Kuyper, 1916: 268-271). 이 영역주권 사상은 카이퍼 이후에도 계속 발전, 적용되어 네덜란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쳤다(최용준, 2022: 187-205).

이처럼 카이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했지만, 신정정치(théocratie)는 배격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주권, 즉 자신보다 높은 권력이 없는 권력은 원래 하나님에게만 존재하며, 따라서 국민 주권의 기원도 그분에게 있고 이 권위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둘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소유한 여러 국민과 그에 따른 기관이 될 사람들의 지정은 이스라엘을 제외하고는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따라서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셋째로 인간에 의한 이러한 정치도 그것이 군주제 통치로 이어지든 연방의 형성으로 이어지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Kuyper, 1916: 273, 289).

## 6. 중앙 정부

중앙 정부(Hooge Overheid)에 관해서는 카이퍼가 『반혁명적 국가학』 1권 7장에서 다루고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잘 요약하고 있다(Kuyper, 1916: 259-260).

- 1) 원래 하나님 안에서 가장 높은 권위는 아버지를 통해 가족 모든 구성원에 대해 제정되었다.
- 2) 부계의 권위는 최초 세대에 의해 가부장적으로 계속될 운명이었다.
- 3) 하지만 이 질서는 죄로 왜곡되었다.
- 4) 그 결과 인류는 점점 더 분열되었다.
- 5) 따라서 정부의 권위는 완전히 해체될 수 있는 외과적 봉대와 같았다.
- 6) 정부의 권위는 하나님께 속한 권위의 도구이므로 지상에서 그 이상의 권위가 없고, 법과 통치를 설정하고, 필요한 자금과 긴급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자유와 생명도 제한할 수 있다.
- 7) 이 신성한 권위의 소유자로 합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정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경우 초자연적 지정으로 이루어졌지만, 다른 국가의 경우 항상 사람을 창조하시고 은사를 주시며 사건의 과정을 지시하고 통제하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이해함에 따라 이루어졌다.

8) 하나님의 섭리가 중요할수록 그 결과는 민족과 국가의 운명을 더 많이 좌우한다.

나아가 정부 형태에 관해 카이퍼는 군주제, 귀족정 그리고 민주 공화정으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신명기 1장 13-14절에 대한 주석을 통해 군주제와 귀족정을 반대한 칼뱅의 입장에 동의했다. 칼뱅은 왕이 권한을 남용할 것을 우려하여 그보다는 귀족정이 나올 수 있으나 이것 또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했으므로 반대했다(Kuyper 1916: 631-632). 나아가 카이퍼는 칼뱅이 그의 기독교 강요(*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마지막 20장 8절(Calvin, 2014, 김대웅, 2022)에서 이미 공화정 형태의 정부가 군주제보다 그에게 더 매력적이었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했음을 지적했다(Kuyper 1916: 630) 이처럼 제네바에서 실현된 민주적 공화정은 네덜란드가 독립할 당시 세계 최초로 공화국으로 1581년에 시작하게 되는 동기가 되었고 나아가 이 사상은 미국이 독립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설립되는 원동력을 제공했다고 카이퍼는 예리하게 분석했다(Kuyper 1916: 709).

## 7. 국가의 목표

국가에 목표에 관해 카이퍼는 『반혁명적 국가학』 1권 9장에서 다루면서 먼저 네덜란드의 종교개혁자 귀도 드 브레(Guido de Bres, 1522-1567)가 1561년에 작성한 네덜란드 신앙고백서 제36조를 인용한다. “사람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왕, 군주와 국가의 관리들을 세우셨음을 믿는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법과 제도에 의하여 운영되므로 사람들의 무법성이 억제되고 사람들 사이의 모든 것들이 선한 질서 안에 운영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추가로 설명한다. “모든 사람은 지위나, 환경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국가에 순종하여야 하며, 세금을 내야 하고, 그 관리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모든 일에 그들에게 순종하고, 주님께서 그들의 직무를 온전히 인도하셔서 우리가 모든 경건과 품위 안에서 평안하고 조용하게 살도록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여야 한다.”(Kuyper, 1916: 290)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 종족의 통일은 그 후 수많은 민족으로 대체되었고 이제는 고정된 관계를 구축하여 각 국가에서 단결을 확립하기 위해 정부가 생겨났으며 국민의 단결은 국가 형태로 정부의 권위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목적에 대해서는 두 의견이 충돌하게 되었다고 카이퍼는 지적한다. 첫째 의견은 국가란 개인을 사적인 개인으로 섬기거나 집단적 개인을 하나의 민족으로 묶는 기관으로 생각할 수 있기에 국가는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유일하고도 유효한 목표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며 개인은 국가를 위해 존재한다고 본다. 반면에

다른 의견은 1789년 이후부터 국가의 목표가 개인 시민의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며 공익은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았다(Kuyper, 1916: 291-292). 즉 국가가 개인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카이퍼는 다시금 국가의 출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Kuyper, 1916: 302-304). 인류가 타락한 후 죄와 비참에 빠져 삶의 외적 행복과 내적 완전성이 모두 왜곡되었으며 인류는 악마의 영향을 받고 저주의 결과를 겪게 되었다. 그 결과 중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전체 가족의 일관성이 깨어지고 가족, 친족과 개인으로 분열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계속되었다면, 인류는 더 높은 발전이 불가능했을 것이며, 비열함, 소유욕, 탐욕, 살인이 우세했을 것이고 결국 인간 사회는 완전한 파산으로 끝났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두 가지 은총으로 방지되었는데, 먼저 특별한 은총으로 그리스도의 왕국을 예비하신 것과 둘째로 지상에서 우리 인간의 삶을 가능하게 하고 특별한 은총이 꽃피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준 일반 은총이다. 이 보편 은총에는 국가와 민족을 유지하고 성숙하게 만드는 정부의 등장도 포함한다. 그 결과 국가는 교정과 원조기관으로 국민과 협력함으로써 우리 삶을 발전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반면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특별한 은혜는 그분의 주권으로 이 세상에 들어왔고, 언젠가는 만물이 그의 왕권 아래 굴복하며, 악마의 교란적인 세력에 대해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함을 고귀한 형태의 낙원으로 보여줄 것이다. 결국, 국가는 인류의 구세주가 아님이 증명되고 오히려 무력함이 드러날 것이며, 우리의 참된 구주로 새로운 생명을 가져오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실 것이라고 카이퍼는 강조한다. 국가는 완전한 실패로 끝날 것이고 승리는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남을 것이며 국가는 우리를 잃어버린 낙원으로 되돌릴 힘이 없음을 증명할 것이지만,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만왕의 왕만이 고귀한 영광의 상태로 우리에게 낙원을 돌려줄 수 있다고 그는 주장한다(Kuyper, 1916: 299-302).

그러나 그사이에는 임명된 정부 아래 국민이 함께 지속하는 사회가 발전했고 정부는 점점 더 국가의 형태를 취하여 아픈 사람의 육체에 임시로 감은 붕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카이퍼는 설명한다. 따라서 국가의 목적은 다리를 부러뜨린 불행한 사람에게 목발을 주고 다른 방법으로는 더 걸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붕대를 감아주는 것이지만 이것이 지체 장애를 완전히 치료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상태는 지금도 계속되며 마침내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진다면 부러진 다리를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켜 그에게 주어진 생명을 증가시키나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는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인류가 스스로 걸을 수는 없지만, 다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이 외에는 다른 목적이 없다. 따라서 정부가 알아야 할 국가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Soli Dei Gloria)이라고 카이퍼는 주장한다(Kuyper, 1916: 303-308).

이러한 그의 입장은 홉스가 그의 책 *Leviathan*(리바이어던)에서 로마 가톨릭교회는 결코 국가 위에 절대 주권을 가질 수 없음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자연 상태의 인간 사회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므로 국민이 권력을 위임한 군주가 속세의 일뿐만 아니라 종교에 관해서도 전권을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한(Hobbes, 1651) 것과는 다르며, 로크가 *Two Treatises of Government*(통치론)에서 왕권신수설을 비판하면서 낙원적 자연 상태에서 노동에 의한 자기 재산을 소유하는 자연권의 안전 보장을 위한 사회적 계약으로 국가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Locke, 1689) 것과 유사한 부분도 있으나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이라고 하는 성경적 세계관에서 국가의 목표를 설정한 것은 독특하다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루소가 *Du Contract Social*(사회계약론)에서 인간의 일반의지야말로 절대적이며 주권의 기초이고 법이나 정부도 여기서 나온다고 주장하면서 철저한 인간 주권론을 주장한(Rousseau, 1762) 입장과는 전혀 다르다고 볼 수 있다.

## 8. 국제 관계

카이퍼의 국가관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분야는 『반혁명적 국가학』 1권 10장에서 다루고 있는 국제 관계이다. 여기에서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존중이 절대적이어야 하는데 왜냐하면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국가 간의 관계에 관한 한 주권이나 탐욕으로 상대방의 권리를 꺾으려는 유혹이 강하게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예리하게 지적한다(Kuyper, 1916: 316-317). 그러면서 그는 당시 두 번이나 헤이그에서 개최된 만국평화회의에 대해 논하였는데 평화주의는 너무나 이상적임을 지적하면서 보다 현실적으로 중재 재판소(De Arbitrage) 또는 중재 법원(het Scheidsgerecht)에 대해 제안한다. 먼저 이 중재 재판소의 도입을 위한 조치가 실제로 러시아의 차르(Czaar)에서 시작되었다는 점과 다른 한편 이것이 상징적이라고 불리는 것은 유럽이나 미국의 거대한 수도 중 하나가 아니라 거의 시골이나 다름없는 헤이그의 평화궁(het Paleis)<sup>3</sup>에 자리 잡았음을 그는 지적한다. 러시아의 피터 대제(Пётр I Великий, 1672-1725)<sup>4</sup>는 이미 17세기에 러시아와 네덜란드 사이의 연결 고리를 확립했는데, 네덜란드가 인구는 작지만, 과거에 세계 무역을 제패하며 황금시대를 구가한 민족임을 인정한 이 황제의 선택은 의심할 여지 없이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모두 옳았지만, 현실을 똑바로 파악하는 사람은 평화회의나 중재 재판소에 큰 기대를 걸지는 않는다고 카이퍼는 진단한다(Kuyper, 1916: 318-321).

3) 평화궁(Peace Palace)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건물로 국제사법재판소, 상설, 헤이그 국제법 아카데미, 평화궁 도서관이 있다. 미국 철강 재벌 앤드루 카네기가 당시 금액으로 150만 달러를 기부하여 1913년 8월 23일에 개관했다.

4) 표트르 1세 벨리키(Пётр I Великий, 1672-1725)는 러시아 제국 로마노프 왕조의 황제로서 서구화 정책과 영토 확장으로 루스 차르국을 러시아 제국으로 만들었다.

이와 함께 두 나라 혹은 수 개국이 방위 또는 공격을 하기 위해 조약에 따른 공동 행동을 맹약하는 국제 협정인 동맹(同盟, Alliantie)과 국가의 권력이 중앙 정부와 주에 동등하게 분배된 정치 형태로, 2개 이상의 주권이 결합하여 국제법상 단일적인 인격을 가지는 복합 형태의 국가인 연방(聯邦, Federatie)에서 해법을 추구하는 완전히 다른 기원과 의미의 행동도 있다고 카이퍼는 설명한다(Kuyper, 1916: 336-338). 먼저 역사상 유명한 동맹의 예로서는 대 나폴레옹 동맹(1793-1814), 독일·오스트리아·이탈리아의 3국 동맹, 영·일 동맹, 불·소 동맹, 일본·독일·이탈리아의 3국 동맹 등이 있는데 동맹에서 첫 번째 단계는 협상(Entente)이고, 이 모든 행동을 달성하고자 하는 마지막 단계는 연방적 유대를 통해 효과적이며 결국 국가의 독립을 폐지하게 될 최고 권위의 단일화이다. 이 과정의 결과 특히 유럽의 작은 국가가 점점 더 자신의 안전을 찾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중립국에 대한 아이디어를 점점 더 전면에 부각했다고 그는 지적한다. 그 결과 벨기에, 스위스, 룩셈부르크, 콩고는 당시 중립국으로 인정받았다(Kuyper, 1916: 340).

연방은 더 작은 민족 단위들이 있었을 때, 하나의 강력한 국가가 출현한 자체 합의 시스템이었다. 이에 대한 동기는 군주나 왕실이 자신의 영토를 확장하려는 욕망일 수도 있지만, 이와는 별개로 많은 소규모 국가들이 압도당하고 독립을 강탈당하는 위협에 노출되었을 수도 있어 같은 위협에 처한 이웃 국가와 공동 방어를 위해 힘을 합치게 된 것이다. 이 두 가지 동기는 같은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데 비록 같은 군주가 두 국가를 다스리기 때문에 두 국가 사이에 확립된 인적 유대감 자체는 여전히 완전한 연방 성격이 부족했으나 그 연방의 성격은 양국 간에 동맹 조약이 체결되고 이 조약이 내구성을 획득했을 때만 존재한다(Kuyper, 1916: 341-344).

국가 간 연합의 마지막 범주는 당시에 적지 않던 식민지들인데 이 식민지화는 페니키아인과 그리스인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으며 원래 흑해를 포함한 고대 세계의 바다로 이동하여 현재 크림반도 남서부에 있는 최대의 항구도시인 세바스토폴(Севастополь)에서 지중해의 대서양 방향 입구로, 이베리아반도 남부에 있는 영국의 해외 영토이며 북쪽으로는 스페인의 안달루시아 지방과 접하고 있는 지브롤터(Gibraltar)로 이동했다. 이 지중해 지역이 식민지화를 촉발한 동기는 두 가지인데, 먼저 페니키아인은 무역을 원했고 그리스인은 하나의 강력한 공화국에서 새로운 연방을 계속해서 낳으려는 경향 때문이었다고 카이퍼는 분석한다(Kuyper, 1916: 358). 그 후 포르투갈이 케이프 주변을 향해하기 시작하고 대서양 반대편에 새로운 대륙이 발견된 것이 15세기와 16세기였다(Kuyper, 1916: 361). 아시아에서는 그렇지 않았으며 세 개의 강력한 제국이 있었는데 인도 이전의 무굴제국, 미카도(천황)<sup>5</sup>가 있는 일본, 그리고 황제가 있는 중국이다. 아시아에서 결정적인 것은 원래 인구를

5) 일본의 군주인 천황의 별칭으로 ‘御門’이라고도 표기한다. 일본의 대중문화 작품에서 천황을 등장시킬 때는 미카도라 에둘러 표기하는 예가 많으며 한국어로 임금님과 유사하다. 오카야마, 시즈오카, 이와테 등지에 있는 지명이기도 하며, 일본 전국에 미카도란 지명은 수없이 존재한다.

대체하기 위한 이민이 아니었는데 왜냐하면, 첫째, 인구가 너무 밀집하고 많아서 대체할 수 없었고 둘째, 남쪽의 기후가 모든 중요한 이주를 방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과 일본은 홀로 남겨졌으며 잉글랜드는 인도에서 투쟁을 벌였고, 네덜란드 동인도회사는 무역에 집중하여 저항이 없는 한 정치를 그대로 두었으며 인내와 신중함을 통해 점진적으로 군도 전역에서 실제적인 지배권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가 그곳에서 독립을 잃게 되었다고 그는 설명한다(Kuyper, 1916: 362-364). 기타 카이퍼는 식민지와 관련하여 보호령(Protectoraat)과 종주권(Suzereiniteit)에 대해서도 설명한다(Kuyper, 1916: 371-384).

국제법은 그 본질과 특성을 바꿀 수 없고 신성하더라도 문제는 국가 간에 실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카이퍼는 보았다. 따라서 결론은 법이 국가 간에 매우 명확한 의미로 적용되어야 하며 이런 관계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것과 같아야 한다. 따라서 절대적 의미의 국제법이 있으며, 법적 관계가 모든 면에서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잘못이라는 것이다. 인간관계가 가족, 사회, 민족에서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결정하고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며, 그분만이 국가 간의 관계도 결정하실 수 있고 그분이 명령하신 법이 국제법이다. 이 절대적 법은 심의 및 합의를 통해 열방 간에 표현되지만, 그것을 규정하고 집행하는 기관은 부족하다고 카이퍼는 말한다(Kuyper, 1916: 398-400). 이러한 카이퍼의 견해는 역시 하나님의 절대주권에 기초해 있기 때문이며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일반 국제법학자들과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 III. 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카이퍼가 마지막으로 남긴 두 권의 저작인 『반혁명적 국가학』 및 이와 관련된 저서들을 통해 그의 국가관에 대해 다른 학자들과 비교하면서 고찰해 보았다. 무엇보다 먼저 그는 국가란 하나님의 창조에 제정된 기관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 후 일반 은총에 의해 나타난 것임을 명확히 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은 바로 ‘외과적 봉대’이다. 그리고 국가의 세 요소가 되는 국민, 영토 및 주권에 대해 논한 후 그는 ‘영역 주권’을 강조했다. 그것은 당시에 국가주의, 즉 국가를 절대시하는 사상이 만연하면서 교회, 교육 및 가정의 영역도 국가가 통제하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동시에 정부 형태로는 칼뱅과 같이 민주 공화정을 선호함도 보았다. 나아가 카이퍼는 당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제 관계에 필요한 하나님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국가관은 일반 다른 학자의 국가관과 매우 다름도 고찰하였다.

이러한 국가관에 기초하여 그는 네덜란드에서 1879년에 최초의 전국적인 정당인 반혁명당(Anti-Revolutionaire Partij)을 설립하였으며 이 당은 1980년, 가톨릭 인민당(Katholieke Volkspartij) 및 기독교역사연합(Christelijk-Historische Unie)과 통합하여 기독교 민주연합(Christen-Democratisch Appèl)으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이 당이 기독교 정당적 정체성이 약해졌다고 본 일부 기독교 정치인들은 1975년에 개혁정치연합(Reformatorische Politieke Federatie)을 설립한 후 2000년에 개혁정치연맹(Gereformeerd Politiek Verbond)과 통합하여 기독교연합당(ChristenUnie)으로 개명하여 규모는 작지만 충실하게 소명을 감당하고 있다.

한국사회도 1960년대 이후 군사정권 및 독재 정치에서 벗어나 이제는 아시아에서는 경제적인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비교적 모범적인 민주공화국으로 성장해왔다. 그리하여 다른 많은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깊이 성찰해볼 때 아직도 여러 가지로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음을 부인할 수 없다.

무엇보다 먼저 정치 영역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으므로 우리가 결코 포기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 됨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한국 교회와 많은 기독교 대학이 카이퍼의 사상을 계승한다고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정치 분야는 세속적이므로 그리스도인이 참여해서는 안 될 영역인 것처럼 간주하는 이원론에서 벗어나 기독교 정치 분야에 대해 더 많은 연구와 실천을 통해 한국사회에 주님의 주권이 영역마다 인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네덜란드의 기독교 민주연합 또는 기독교 연합당과 같은 건전한 기독교 정당이 한국사회에도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교육 영역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간섭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 공교육에 대한 실망으로 많은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설립되었으나 교육부의 재정을 지원받으려면 기독교 교육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채플 대신 종교를 가르쳐야 하는 등 많은 제약이 뒤따르고 있다. 그 결과 많은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다. 나아가 교육감이 기독교 사립학교 교사 임명권을 가지고 있어 이 학교들의 기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것은 분명 카이퍼가 말한 영역 주권 사상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단결하여 정부에 올바른 입장을 발표하고 개선을 촉구하면서 여러모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카이퍼도 기독교 학교의 정부 재정 지원을 얻기 위해 80년간 동역자들과 함께 노력하여 마침내 헌법까지도 개정한 점을 우리도 기억하면서 본받아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 참고문헌

- 김대웅 역. (2022). **기독교 강요**, Calvin, J. (2014).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서울: 복 있는 사람.
- [Kim, D. W. (2022).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Seoul: Blessed Man. Trans. Calvin, J. (2014). *The Institutes of the Christian Religion*. White, R. (Ed.) London: Banner of Truth]
- 김종원 (2016). 개혁주의 세계관에 바탕을 둔 도예베르트 철학에서 국가 개념 연구: 국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인가 아니면 죄의 결과인가? **신앙과 학문**. 21(3), 61-89.
- [Kim, J. W. (2016). Dooyeweerd's concept of the state based on the reformational worldview: Is the state a result of sin or a institution of the creation order? *Faith & Scholarship*. 21(3), 61-89.]
- 박태현 역. (2020).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주권: 인간의 모든 삶에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 Kuyper, A. (1880).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서울: 다함.
- [Park, T. H. (2020). *Abraham Kuyper's Sphere Sovereignty: God's Sovereignty to All Spheres of Human Life*. Seoul: Daham. Trans. Kuyper, A. (1880). *Souvereiniteit in Eigen Kring*. Amsterdam: Kruyt]
- 박태현 역. (2021). **아브라함 카이퍼의 칼빈주의 강연: 문화변혁의 기독교 세계관 선언서**. Kuyper, A. (1899). *Het Calvinisme: Zes Stone-lezingen*. (1899). *Lectures on Calvinism*. 서울: 다함.
- [Park, T. H. (2021). *Abraham Kuyper's Lectures on Calvinism: Christian Worldview Manifesto for Cultural Transformation*. Seoul: Daham. Trans. Kuyper, A. (1899). *Het Calvinisme: Zes Stone-lezingen*. Amsterdam/Pretoria: Höveker & Wormser. (1899). *Lectures on Calvinism*. Grand Rapids: Eerdmans]
- 손기화 역 (2018). **아브라함 카이퍼의 정치 강령**. Kuyper, A. (1880). *Ons Program*. 서울: 새물결 플러스.
- [Son, K. H. (2018). *Our Program*. Seoul: New Wave Plus. Trans. Kuyper, A. (1880). *Ons Program*. Amsterdam: J. H. Kruyt. Harry Van Dyke (Ed.) *Our Program: A Christian Political Manifesto*. Bellingham, WA: Lexham Press]
- 임원주 역 (2017). **일반 은혜: 타락한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 1권, Kuyper, A. (1902-04). *De Gemeene Gratie*, Vol. I-III. 서울: 부흥과 개혁사.
- [Im, W. J. (2017). *Common Grace: God's Gifts for a Fallen World*. Vol. I. Seoul: Revival & Reformed Press. Trans. Kuyper, A. (1902-04). *De Gemeene Gratie*. Vol. I-III, Kampen: J. H. Kok. Ballor, J. J. et. al. (Eds), Kloosterman, N. D. & Van der Maas, E. M. (Trans.),



- (2016). *Common Grace*. (Vols. 1-3): *God's Gifts for a Fallen World*. Bellingham, WA: Lexham Press]
- 정성구 (2010).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용인: 킹덤북스.  
[Chung, S. K. (2010). *The Life and Thought of Abraham Kuyper*. Yongin: Kingdom Books.]
- 최용준 (2014). 칼빈주의와 네덜란드의 기업가정신: 역사적 고찰을 중심으로. **신앙과 학문**. 19(1), 153-181.
- [Choi, Y. J. (2014). Calvinism and the Dutch Entrepreneurship: a historical research. *Faith & Scholarship*. 19(1), 153-181.]
- 최용준 (2022). 아브라함 카이퍼의 영역 주권 사상이 주는 사회 윤리적 함의에 관한 고찰. **신앙과 학문**. 27(3), 187-205.
- [Choi, Y. J. (2014). A Research on the Socio-Ethical Implications of Abraham Kuyper's Thought on Sphere Sovereignty. *Faith & Scholarship*. 27(3), 187-205.]
- Bodin, J. (1577) *Les Six Livres de la République*. Paris: J. Du Puys.
- Chaplin, J. (2011). *Herman Dooyeweerd: Christian Philosopher of State and Civil Society*.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 Hobbes, T. (1651). *Leviathan, or The Matter, Form and Power of a Commonwealth Ecclesiastical and Civil*. London.
- Kuyper, A. (1916). *Antirevolutionaire Staatskunde: met nadere toelichting op ons program*. 2 Delen, Kampen: J.H. Kok.
- Locke, J. (1689). *Two Treatises of Government*. London.
- Machiavelli, N. (1532). *Il Principe*, Firenze: Per Bernardo di Giunta.
- Rousseau, J. J. (1762). *Du Contract Social ou Principes du droit politique*. Amsterdam.
- Snel, J. (2020). *De Zeven Levens van Abraham Kuyper: Portret van een Ongrijpbaar Staatsman*. Amsterdam: Prometheus.
- Spruyt, H. (2002). The Origins, Development, and Possible Decline of the Modern State.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5(1), 127-149.
- Wang, Y. (2021). State-in-Society 2.0: Toward Fourth-Generation Theories of the State. *Comparative Politics*. 54, 175-198.

[www.allofliferedeemed.co.uk/kuyper.htm](http://www.allofliferedeemed.co.uk/kuyper.htm)

# 아브라함 카이퍼의 국가관에 관한 고찰: 반혁명적 국가학(*Antirevolutionaire Staatskunde*)을 중심으로

A Research on Abraham Kuyper's View of State focusing on *Antirevolutionaire Staatskunde*(*Antirevolutionary Political Science*)

## 논문초록

본 논문은 네덜란드의 신학자이자 정치가며 언론인인 동시에 교육자였던 아브라함 카이퍼(Abraham Kuyper, 1837-1920)가 마지막으로 남긴 두 권의 저서 *Antirevolutionaire Staatskunde*(반혁명적 국가학) 및 다른 저서들을 통해 그의 국가관을 고찰한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카이퍼는 국가가 하나님의 창조 계획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한다. 오히려 그것은 타락한 결과, 다시 말해, 죄와 그에 따른 저주의 결과를 경감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의해 도입된 것으로 인류의 삶에 유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죄가 낳은 상처에 대해 신성한 의사이신 창조주께서 허락하신 외과적 붕대와 같은 것이며 따라서 본질적으로 비정상적인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지상의 국가는 소멸하게 된다고 카이퍼는 강조한다. 그다음에 국가의 3요소인 국민, 국토, 주권을 그의 유명한 영역주권 사상과 함께 차례로 다룬다. 그런 다음 중앙 정부 형태, 국가의 목표, 국제 관계와 같은 주제를 살펴본 후 다른 학자들의 견해와 비교하여 평가한 후 결론적으로 카이퍼의 국가관이 현대 한국사회에 주는 함의가 무엇인지 제시한다.

주제어: 아브라함 카이퍼, 국가, 일반 은총, 외과적 붕대, 영역주권